

캐나다와 영국, GCF 지원 준비돼

GCF가 100억 달러 기금조성 목표를 거의 달성해가면서
글로벌 기후 협약에 대한 희망도 커져

2014.11.17, Ed King / 캐나다와 영국 국가 정상들이 최근 녹색기후기금(GCF)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, 이것은 UN의 신기후협정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지원할 새로운 모델이다

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11월 16일(일) 밤 GCF을 지원하겠다고 시사한 한편,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는 이번 주 말쯤 10억 달러 재정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미국과 일본이 각각 30억 달러, 15억 달러를 약속한 가운데, 캐나다와 영국의 지원은 GCF가 100억 달러의 2014 재원조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하퍼 총리는 글로벌 기후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비판했지만, 지난 주 미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위한 협약으로 UN의 새로운 기후협정이 이제는 가능할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.

“처음으로 [UN 신기후협정]이 실제로 모습을 갖추가기 시작했다”고 캐나다 매체 The Globe and Mail가 하퍼 총리의 말을 인용했다.

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이 이번 주 후반 베를린에서 열릴 GCF 재정공약회의에서 재정공약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.

본지(RTCC)가 확인한 영국 재무성(Treasury) 문서에 따르면, 영국은 9억 6천 9백만 파운드(15억 달러)를 2015/2016년 기후재정지원 몫으로 이미 할당해놓았으며, 카메론 총리는 이를 GCF에 배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.

영국 국제 기후 펀드(ICF)

- 2015 : 38억 7천만 파운드(60억 달러)
- 2015/2016 : 9억 6천 9백만 파운드(15억 달러)
- 적응에 50%, 저탄소 개발 및 삼림 분야에 20% 할당

카메론 총리는 “영국은 이미 상당한 자금을 녹색기후재원에 할당해놓고 있다”고 말하면서, “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할당된 자금 중 얼마만큼을 GCF에 공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.” “이런 이슈에서 언제나처럼 영국은 제 몫을 할 것이며,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”고 말했다.

GCF 에 대한 캐나다의 지원은 토니 애벗 호주 총리에게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 토니 애벗 총리는 기후 법률 추가 제정에 반대하는 데에 있어 보수성향인 하퍼 총리를 같은 편으로 여겨왔었다.

호주와 캐나다는 막대한 화석연료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이다. 호주는 세계 5 위 석탄 수출국이며, 캐나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으며, 캐나다 알버타(Alberta)의 타르샌드(tar sands)는 세계 최대 매장량이다.

한편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은 키스톤 XL(Keystone XL) 송유관 건설을 승인하는 법안을 금요일 통과시켰다. 이 송유관은 알버타에서 멕시코 만에 있는 정유업체까지 석유를 수송할 수 있는 설비이다.

1 월까지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상원에서 이 법안이 승인되면, 오바마 미 대통령은 송유관 건설 안을 통과시키거나 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양자 택일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.

호주 브리즈번 G20 회의장을 떠나기 전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“[키스톤 XL 송유관 문제는 관련] 모든 절차를 거칠 것”이며,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기후 문제에 달려있다고 말했다.

오바마 대통령은 “이 사안에 대한 저의 의견은, 이 송유관이 기후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더 부추기는가 캐나다의 석유를 미국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 수송하게 될 이 파이프라인 승인 여부의 주요 결정요인” 이라고 말했다.

출처 = <http://www.rtcc.org/2014/11/17/canada-and-uk-promise-to-back-green-climate-fund/>